

보도일시	2024년 2월 1일(목) 조간부터	배 포 일	2024년 1월 31일(수)
담당부서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책임자	박진우 부장(T.3705-5247) 박영상 부장(T.3705-5704)
		담당자	김수연 팀장(T.3705-5287) 배진호 팀장(T.3705-5224)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강영수 과장(T.2100-2950)
		담당자	김경호 사무관(T.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정우현 국장(T.3145-8020)
		담당자	양유형 팀장(T.3145-8050)

##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작으로 “2.1조원+ $\alpha$ ”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본격 시행

- 은행권은 '23.12.21.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최종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천억원이 증가한 “2.1조원+ $\alpha$ ”로 확정
- 이 중 1.5조원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에, 0.6조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 예정
-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2월초(2.5~8.)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3,587억원의 이자(1인당 평균 73만원)를 일차 환급 예정(전체 환급 예상액의 약 91%)
  - －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분기별 환급 예정액(1,422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009억원으로 예상(지원대상 총 188만명, 1인당 평균 80만원)

□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와 20개 사원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1조원+ $\alpha$ ”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 은행권은 '23.12.21.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alpha$ )을 하는 “2조원+ $\alpha$ ”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이후 은행연합회는 은행 및 금융당국과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지원 규모,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집행계획 및 자율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등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지원규모 : 2.1조원+ $\alpha$

-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23년 추정 당기 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천억원 증가한 “2.1조원+ $\alpha$ ”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

- 은행별로는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천억원~3천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되었습니다.(은행별 세부내역은 붙임 1 참조)

## 2.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 2월초 개인사업자 187만명 대상 1.36조원 일차 환급(⇒분기별 환급 예정액 포함 총 이자환급액 1.5조원)

- 은행권은 2월초(2.5.~8.)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조 3,587억원\*을 지급(1인당 평균 73만원\*\*)할 예정입니다.

\* 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

\*\* 은행권 전체 평균액이므로 은행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2월초 환급액과 '24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422억원('24년중 분기별 환급)을 합산한 1조 5,009억원으로 추정됩니다.(지원대상 총 188만명,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주요내용>**  
(23.12.21. 발표내용)

- [지원대상]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 [지원방식]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의 경우,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 조정 적용.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

- 2월 5일부터 8일(4일간)까지 진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과 관련하여 대상차주에게는 2월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안내 문구 표준안 붙임 2 참조)

\* 2.1.~2.7. 중 은행별로 별도 기간을 정해 안내 예정(예: 2.2.~2.5.)

- 금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됩니다.
- 따라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자율 프로그램 : 0.6조원 지원, 3월말 집행 계획 발표

-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6천억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23.12.21. 발표 때에 비해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가 1천억원 증가하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예상규모가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당초 발표액인 4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하여 3월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 2월초 집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2월말 최종 집계하여 공시하고,
- 이후에는 매분기 익월말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3월말에 집행계획이 발표되는바, 7월말부터 실적공시 개시

- 금번 은행권 민생지원방안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지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콜센터 연락처 >**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부산은행	☎ 1544-6200 1588-6200
신한은행	☎ 1599-8000 1577-8000 1544-8000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1533-5000	제주은행	☎ 1588-0079
SC제일은행	☎ 1588-1599	전북은행	☎ 1588-4477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케이뱅크	☎ 1522-1000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카카오뱅크	☎ 1599-3333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토스뱅크	☎ 1661-7654
수협은행	☎ 1588-1515 1644-1515	산업은행	☎ 1588-1500 1668-1500
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붙임 1.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 1부  
2.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1부  
3.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

(단위: 억원)

은행	지원금 분담액 (A)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B)		자율 프로그램 (A-B)
			'24.2월 지급액	
국민	3,721	3,005	2,617	716
하나	3,557	1,994	1,836	1,563
신한	3,067	1,973	1,819	1,094
우리	2,758	1,824	1,684	934
SC제일	409	102	91	307
한국씨티	335	55	55	280
부산	525	525	487	0
대구	445	442	401	3
경남	307	307	266	0
광주	293	172	152	121
전북	190	190	169	0
제주	18	18	18	0
기업	2,519	1,825	1,693	694
농협	2,148	2,129	1,993	19
수협	290	223	188	67
카카오	372	173	92	199
케이	51	51	25	0
토스	0	0	0	추후 결정
계	21,005	15,008	13,586	5,997
(산은 포함)*		(15,009)	(13,587)	

\* 산업은행은 '23.12.2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α) 대상이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공통 프로그램에 따른 이자환급 시행에 참여(1억원)

※ 지원금 분담액(A)을 제외한 공통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상황에 따라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LMS 등)

※ 개별은행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 가능

○○○님,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행은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가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하는 「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문자를 받으신 손님은 「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대상이며, ○○은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정상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계좌로 지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보이스포싱 관련 유의사항]

Q. 대출이자를 캐시백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대출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캐시백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서 2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수수료 납부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에 해당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 본인 명의 당행 자동이체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본 캐시백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손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고객센터(○○○○-○○○○)나 거래중인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Q1〉 민생금융지원 전체 규모가 당초 2조원+α에서 2.1조원+α로 증가한 이유는?**

- 은행권은 당초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기로 발표('23.12.21.)
  -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이와 관련 18개 은행은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을 지원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액을 산출한 결과 2.1조원으로 집계됨

**〈Q2〉 2024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환급(캐시백) 집행일정은?**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 이후에 이자 캐시백 집행 예정
  - ※ 예시 : '24.4월 중순 이후, '24.7월 중순 이후, '24.10월 중순 이후, '25.1월 중순 이후, '25.4월 중순 이후('25.1월 미지급건에 대한 재검증용)

**〈Q3〉 전체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올해(2024년) 내 집행을 완료하는지?**

- 은행권은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만, 현실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달할 가능성(금리변동, 대출금액 감소 등)이 있어 내년 1/4분기 점검 필요
  -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실적이 미달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 등 실적 달성 방안 검토 예정



**〈Q4〉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외 자유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자유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3월말에 발표 예정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은행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으나, 각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지원 예시>

- ①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 ②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 ③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Q5〉 매년 은행권이 집행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실적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되는지?**

- 은행권이 기존에 시행해온 사회공헌사업 실적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Q6〉 발표된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약속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은행연합회가 매분기 익월말까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유프로그램 실적을 은행별로 취합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할 예정\*

\* 공통 프로그램은 4월말부터, 자유프로그램은 7월말부터

- 다만, '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이자환급은 2월초에 집행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실적은 2월말 별도 공시

**〈Q7〉 이번 발표액이 2023년 당기순이익의 10%라고 했는데, 은행의 실제 당기순이익 수준보다 많은 것 아닌지?**

-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은 각 은행의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
- ☐ 각 은행의 정확한 2023년도 당기순이익은 은행별 결산 발표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으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4분기 대손충당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은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을 일부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 다만,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이 당초 추정치에 미달하더라도 은행권의 총 지원금은 기 확정된 수치로서 하향 조정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 끝.